역대급 실적 달성한 보험업계… "CEO 연임 가능성 높아"

CEO 임기만료 앞둔 주요 보험사

KB생명 허정수 사장
누적 적자 181억… 연임 불투명
NH농협손해보험 최창수 사장
높은 경영 성과 달성… 연임 무게
교보생명 윤열현 사장
호실적 달성… 경영구도 지속 전망
하나손해보험 권태균 사장
1분기 흑자전환 성공… 연임 유력

허정수 KB생명 사장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권태균 하나손해보험 사장

올 연말 국내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대부분의 보험사가 양호한 실적을 거둔 만큼 연임을 예상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허정수 KB생명 사장과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어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뤄젠룽 동양생명 사장, 권태균 하나손보 사장 등도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뒀다.

보험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오는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 등을 달성한 만큼 연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먼저 최창수 NH농협손보 사장은 취임한 첫 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80.9% 뛴 463억원의 순이익 달성이란 성과를 냈다. 이어 올 3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78.2% 증가한 876억원의 누적 순이익으로 순조로운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 사장은 최근 셀프보장분석 서비스 등도 오픈하며 디지털 전환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처럼 최 사장의 높은 경영 성과와 도전 정신으로 연임쪽에 무게가 실린다.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과 뤄젠룽 동양생명 사장에 대해서도 자리를 지킬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교보생명도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9.5% 뛴 6104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연속성이 있는 경영 구도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 사장이 그간 경영지원·대외협력담당을 맡아 자산운용과 경영지원을 총괄해 왔기 때문이다.

뤄젠룽 동양생명 사장 역시 보장성 중심의 영업 전략과 안정적 자산 운용을 통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양생명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4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1%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7.8% 늘어난 1717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뤄젠룽 사장의 영업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권태균 하나손보 사장의 연임도 점쳐진다. 하나손보는 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16억원의 순이익을 거둬들이며 2019년 445억원, 2020년 68억원의 적자에서 벗어난 것. 지속적인 다이렉트 채널 성장세를 통해서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손보는 모바일 방카슈랑스 시장을 확대하고, 미니 생활보험 상품 라인업도 강화해 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적이 바로 CEO들의 연임과 직결됐다면 요즘 상황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얼마나 현재 상황을 잘 버텨내는지가 관건이다"라며 "여기에 신사업 추진 방향과 다른 보험사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업계 흐름을 잘 반영해가고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정수 KB생명 사장의 연임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KB생명이 최근 좀처럼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KB생보는 올 1분기 15억원의 적자에서 2분기 95억원의 적자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KB금융 계열사인 푸르덴셜생명의 순이익이 219.1% 증가한 1924억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성과다. 최근 3분기에는 누적 적자가 181억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향후 푸르덴셜생명과의 통합에 허정수 사장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포스코 "3년간 신규 일자리 2만 5000개 창출"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참여
"양극재 등 신사업 채용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포스코 그룹이 향후 3년 간 신규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포스코 그룹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것으로, 포스코 그룹은 다섯번째 참여 기업이 됐다.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고, 포스코 그룹에서는 최정우 회장, 김학동 사장, 정창화 부사장, 오석근·양원준 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포스코 그룹이 약속한 2만5000개 일자리 중 직접 채용 일자리는 1만4000개다. 포스코 그룹은 2차차전지 소재와 수소, 포스코케미칼 음·양극재 신설 부문 인력 등 신사업 분야에서 직접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1000개의 일자리는 벤처투자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포유 드림' 등의 확대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벤처·창원지원 분야에서는 일자리 5900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벤처펀드 조성에 4300억원, '체인지업 그라운드'와 같은 벤처벨리 조성에는 1060억원 등 총 5360억원을 투자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포유 드림'의 확대 운영을 통해서는 51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아카데미 연 1200명(기존 800명)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연 200명(기존 100명) ▲청년 AI·BigData 아카데미 연 300명(기존 200명)으로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 총리의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는 이날 포스코 그룹을 포함해 KT, 삼성, LG, SK 등 총 다섯개의 기업이 참여하면서 마무리됐다.

다섯개 기업이 약속한 일자리는 총 13만 3000개다. 구체적으로는 KT 1만 2000개, 삼성 3만개, LG 3만9000개, SK 2만7000개, 포스코 2만5000개다.

국무총리실은 '청년희망 ON' 참여 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활용해 청년들의 취업 교육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협의 테이블을 만들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해외투자자 中 주식·채권 보유액 1조弗 ⬆

차이나 뉴스&리포트

"투자자들 中 본토시장 직접 진입"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과 채권 보유규모가 1조 달러(1179조원)를 넘어섰다. 증가규모로 보면 큰 폭으로 확대됐던 작년에는 못 미치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헝다 사태 등에도 중국 자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셈이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해외 투자자가 보유한 위안화 표시 주식 및 채권은 7조5000억 위안(미화 약 1조1000억 달러)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7600억 위안(미화 약 1200억 달러) 가량 늘었다.

FT는 "투자자들이 뉴욕, 홍콩과 같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상장된 금융 상품을 통하지 않고 중국 본토 시장에 직접 진입하고 있다"며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격동의 한 해를 보냈고, 헝다 사태로 중국 하이일드 달러 채권은 헐값에 투매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글로벌 자본은 자산 다각화와 더 큰 수익을 위해 중국 금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자본 유입으로 위안화 표시 채권의 해외 보유액은 3조9000억 위안을 넘어섰고, 외국인 주식 보유규모는 3조6000억 위안에 육박했다. 모두 각각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수치다.

투자자들은 그간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과 같이 뉴욕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크게 의존했다. 중국 내 상장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규제 확실성이 더 컸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상황은 역전됐다.

중국이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규제에 나섰고, 미국 증권 당국 역시 중국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한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홍콩펀드 운용사는 "이제 규제 상황이 역전됐다"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해외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투자성이 예전 만큼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긴급수급물자 지정… 정부, 직접구매 나선다

›› 1면 '3개월 분량 軍 요소수'서 계속

다음 주 차량용 요소 200t(약 20만 ℓ) 수입을 확정한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5000t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물량은 다음 달 초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고, 부적합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카타르 등 약 10여개국과 요소 수입 문제를 협의 중인데, 물량은 약 1만t 가량이다.

앞으로 정부는 직접 요소수 구매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부터 요소 및 요소수가 조달청이 비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물량에 대한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신속히 계약해 국내에 반입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2일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총 319개 업체 중 299개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1561만 ℓ,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 ℓ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추가 확보한 요소수 530만 ℓ는 긴급 제조해 오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부대 예비분 요소수 20만 ℓ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승일·최영훈 기자 won@

"분할상환 의무화, 전 은행권 도입 될 것"

›› 1면 '금융권 전세대출 분할 '서 계속

네이버 부동산카페에 '허울좋은 주거안정'을 주제로 게시글을 올린 한 임차인은 "5~10% 원금을 갚는 것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금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대출자 입장에선 원금상환이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정책은 차주들의 주거안정보단 금융권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전세상품에 대해 원금 5% 분할상환을 의무화했다. 농협은행은 신규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수록 출연요율을 우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가계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결국 분할상환 의무화가 전 은행권에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